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여호수아 —

우상혁*

『새한글』은 머리말에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는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¹⁾ 전자는 ‘원문 존중’의 태도이며, 후자는 ‘독자 배려’의 자세입니다. 원문의 원래 형태와 모습을 지키려는 번역은 보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를 배려하는 번역은 개방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볼 때 『새한글』은 보수와 개방이라는 상반될 수도 있는 두 태도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역본입니다. 이를 ‘원문 존중’과 ‘독자 배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매인 데 없는 여자 — 여호수아 2:1하반

1.1. 히브리어 본문과 한글 번역본 비교

BHS ⁵	וַיֵּלְכוּ נִיבְאֹו בֵּית אִשָּׁה זֹנָה וְשָׁמָּה רָחַב וַיִּשְׁכְּבוּ-שָׁמָּה:
『개역개정』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u>기생</u> 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새번역』	그들은 그 곳을 떠나, 어느 <u>창녀</u> 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u>창녀</u>

* Université de Stras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sh7040@hotmail.com.

1) “머리말”, 『새한글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가 살고 있었다.
『공동개정』	그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예리고로 가서 라합이라는 <u>창녀</u> 의 집을 찾아가 거기에서 묵었다.
『새한글』	그들이 가서, <u>매인 데 없는 여자</u> 의 집에 들어갔다. 그 여자의 이름은 라합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묵었다.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

(1)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서는 여러 개의 절로 구성된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새번역』은 2개의 문장이지만, 『새한글』은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새번역』의 ‘그 곳’과 『공동개정』의 ‘그의 지시를 따라’와 ‘예리고’는 원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과 『새한글』에는 원문에 없는 임의로 삽입한 첨가어가 없습니다.

(3) 히브리어 זְנָתָא (잇샤 조나)를 『개역개정』은 ‘기생’,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창녀’로 옮겼으나, 『새한글』은 ‘매인 데 없는 여자’로 번역합니다(수 6:17, 22, 25).

1.3. 외국어 역본 참조

(1) 문장 개수는 외국어와 한글의 문장 구조와 구성 방식이 달라서 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국어 역본들은 대체로 원문에 없는 첨가어를 번역어에 넣지 않았습니다.

(3) 원문 זְנָתָא (잇샤 조나)를 고대 역본에서는 ‘ $\gamma\upsilon\nu\alpha\iota\kappa\omicron\varsigma\ \pi\acute{o}\rho\eta\nu\eta\varsigma$ ’(LXX)와 ‘*mulieris meretricis*’(VUL) 뿐만 아니라 현대어 역본에서는 ‘prostitute’(ESV, NET, NRS), ‘harlot’(KJV, NAS, NKJ), ‘Hure’(LB[1545], LB[1984], LB, ZB, BB), ‘prostituée’(LSG, TOB), 모두 ‘매춘부’로 번역합니다.

1.4.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을 접하는 독자의 첫인상은 문장이 대체로 짧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2:1하반의 히브리어 원문은 주어와 서술어를 하나씩 가진 단문이 여럿 나열되어 중문을 형성하는 병렬식 구조입니다. 위 구절의 원문을 있는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아래와 같이 4개의 단문이 됩니다.

- ① 그리고 그들은 갔다.
- ② 그리고 그들은 매이지 않은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 ③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다.
- ④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묵었다.

『새한글』은 ①과 ②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 ③과 ④는 히브리어 원문처럼 하나씩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히브리어 원문의 개별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한글 번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①과 ②를 합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문장 모두 주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①과 ②를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면 주어와 서술어만 있는 짧은 문장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피하고자 어떤 행위를 묘사하는 이야기에서 같은 주어를 가진 짧은 문장이 연속하면 한 문장으로 합치려고 하였습니다. 긴 문장이냐, 짧은 문장이냐는 의식하든 하지 않든 문체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히브리어 개별 문장을 그대로 번역문에서 재현하여서, 『새한글』은 고대 성서 히브리어의 문체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새한글』은 원문의 문장을 존중하면서도 오늘날 성경이 읽히는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새한글』 머리말에서 밝힌 번역 특징 첫 번째가 “원문의 긴 문장은 짧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 디지털 매체로 읽기에 적합하도록 한다”입니다. 디지털 매체로 성서를 읽는 독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종이책에 비해 시야 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가독성 측면에서 짧은 문장이 유리합니다.

(2)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원문에 없는 표현을 번역어에 첨가하였습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가령, 『공동개정』은 원문에 없는 ‘그의 지시’와 ‘예리고’를 첨가합니다. 여호수아 2:1상반에서는 여호수아가 정찰병에게 예리고에 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곳’이나 ‘그의 지시’, ‘예리고’ 같은 추가 설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본문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새한글』은 의미 전달에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원문에 없는 것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3) 히브리어 הַיָּדָוָה (잇샤 조나)는 고대 역본과 현대어 역본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매춘부’의 의미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הַזֶּנֶה (조나)는 구약성서에서 ‘매춘부’ 또는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음’의 뜻이 있습니다(참조, BDB). ‘매인 데 없는 여자’가 맥락과 정황에 따라 함의적으로 ‘매춘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매춘부’를 바로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외국어 역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 번역 역사의 관점에서 ‘매인 데 없는 여자’는 번역 관행을 이탈한 번역입니다. 구약성서와 고대 역본, 현

대어 역본 모두 여리고 성의 라합을 매춘부라고 하기에 이천 년 교회사에서 라합은 매춘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인 데 없는 여자’는 도발적 번역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면 ‘기생’과 ‘창녀’라는 표현을 떠올릴 한글 독자는 ‘매인 데 없는 여자’ 앞에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새한글』은 무난한 번역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왜 굳이 비난받을 수 있는 길로 갔을까요? 아마도 한국 교회 정서를 반영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한글』은 여호수아 2:1의 ‘매인 데 없는 여자’에 대해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어떤 남자 아래에도 있지 않은 여자를 가리킴’이라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매인 데 없는 여자’는 ‘놀아나는 여자’와 ‘성매매 여성’, ‘몸 파는 여자’를 중립적이고 우호적으로 말하는 완곡어법에 해당합니다.²⁾ 그럼 왜 『새한글』은 여호수아서의 라합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제거된 언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성의 직업이 매춘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여성에 대해 좋게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2:1의 ‘매인 데 없는 여자’와 그 각주는 매춘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라합은 믿음의 여자입니다(수 2:9, 10, 11).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좋은 표현을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한글』의 ‘매인 데 없는 여자’는 교회의 정서 곧 성경이 읽히는 삶의 정황을 반영한 번역입니다.

2. 상자, 원로 — 여호수아 7:6

2.1. 히브리어 본문과 한글 번역본 비교

BHS ⁵⁾	וַיִּקְרַע יְהוֹשֻׁעַ שָׁמַלְתָּיו וַיַּפֵּל עַל-פָּנָיו אֶרְצָה לִפְנֵי אֲרֹן יְהוָה עַד-הָעֶרֶב הוּא וְזִקְנֵי יִשְׂרָאֵל וַיַּעֲלוּ עֹפֹר עַל-רֹאשָׁם:
『개역개정』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새번역』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2) 『새한글』은 여호수아서에서는 **זִנָּה אִשָּׁה**(잇사 조나)를 모두 ‘매인 데 없는 여자’로 번역하지만, 다른 데서는 ‘놀아나는 여자’(레 21:7; 렘 3:3; 겔 16:30; 23:44)와 ‘성매매 여성’(삿 11:1; 16:1), ‘몸 파는 여자’(잠 6:26)로 옮기기도 합니다. 『새한글』은 맥락에 따라 ‘성매매’와 ‘놀아나다’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창 38:15와 창 38:24를 비교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썼다.

『공동개정』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궐 앞에 엎드려 있었다.

『새한글』 여호수아가 옷을 잡아 찢고 여호와와 상자(궐) 앞에 엎드려 저녁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원로들도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은 자기 머리 위로 흙먼지를 뿌렸다.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

(1)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וְזִקְנֵי יִשְׂרָאֵל(후 브지크네 이스라엘)은 기존 한글 역본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모두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3인칭 대명사 הוא(후)는 『새번역』에서는 ‘그를 따라’로 번역되고 나머지 역본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וְזִקְנֵי יִשְׂרָאֵל(브지크네 이스라엘)은 『개역개정』에서 주어 여호수아 옆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로 나타나며, 『새번역』에서는 뒤에 오는 서술어의 주어로 등장하며, 『공동개정』에서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주어의 위치에 있습니다. 기존 역본들과 달리 『새한글』은 וְזִקְנֵי יִשְׂרָאֵל(브지크네 이스라엘)을 독립된 문장의 주어로 하였습니다.

(2) אַרֹּן(아론)을 ‘궐’이 아니라 ‘상자’로 번역합니다. 기존 한글 성경에 익숙한 독자를 배려하여 ‘상자’와 함께 ‘궐’을 괄호로 표시합니다.

(3) 다른 한글 역본과 달리 זָקֵן(자켄)을 ‘장로’가 아니라 ‘원로’로 옮겼습니다.

2.3. 외국어 역본 참조

(1) וְזִקְנֵי יִשְׂרָאֵל(후 브지크네 이스라엘)의 번역 유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합니다. ‘αὐτὸς καὶ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Ἰσραὴλ’ (LXX), ‘he and the elders of Israel’(ESV, NRS), ‘both he and the elders of Israel’(NAS), ‘he and the leaders’(NET), ‘er und die Ältesten Israels’(ZB), ‘lui et les anciens d’Israël’(LSG, TOB). 다수의 외국어 역본은 이 방법을 쓰지만, 언어적 차이로 인한 문제인지 한글 역본에는 이런 유형은 없습니다.

둘째, 3인칭 대명사 הוא (후)를 빼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로 번역합니다. 루터 계열 역본에서 나타나며 『개역개정』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samt den Ältesten Israels*’(LB[1545], LB[1984], LB).

셋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Auch die Ältesten Israels waren bei ihm*’(BB).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점에서는 『새한글』과 같은 방법입니다.

(2) אָרֹן (아론)은 ‘arca’(VUL) 영어는 대부분 ‘ark’, ‘Lade’(ZB, LB, BB, LB[1545], LB[1984]), ‘arche’(LSG, TOB)로 번역됩니다.

(3) זָקֵן (자켄)을 LXX는 ‘*πρεσβύτερος*’, 대부분의 현대어 번역은 나이가 든 사람을 가리키는 ‘elder’, ‘Alten’, ‘ancien’으로 번역합니다.

2.4.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text{הוא וְזָקֵן יִשְׂרָאֵל}$ (후 브지크네 이스라엘)의 경우, [대명사(그)+보통 명사(이스라엘의 원로들)]로 된 원문을 『새한글』은 하나의 완전 문장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렇게 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수의 외국어 역본처럼 [대명사+보통 명사]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의미 전달이 어렵습니다. 외국어 역본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BB가 『새한글』과 문장을 새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BB는 ‘*Auch die Ältesten Israels waren bei ihm*(이스라엘의 원로들 역시 그의 곁에 있었다)’로 하여서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대명사 הוא (후)를 번역문에서 살리려고 하였지만, 『새한글』은 הוא (후)를 가시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렇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여호수아’처럼 행동했음을 말합니다. 『새한글』은 문맥의 정황을 고려하여 [대명사+보통 명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풀어서 번역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낱말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이를 조심하여 번역하였다는 인상을 줍니다. 풀기는 하지만 절제하려는 듯합니다.

(2) אָרֹן (아론)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는 ‘관’(창 50:26), 돈을 넣는 ‘통’(왕하 12:10), 증언의 돌판을 넣는 ‘궤’(출 25:10)를 가리킵니다. 고대 성서 히브리어에서 אָרֹן (아론)은 물건이나 시신을 넣을 수 있는 네모난 모양의 박스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나 증거판 등과 관련될 때 ‘아론’을 기존 한글 번역은 모두 ‘궤’로 번역하지만, 『새한글』은 ‘상자’로 번역합니다. ‘궤’와 ‘상자’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비슷합니다. ‘궤’는 요즘 전혀 안 쓰는 낱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즘 세대는 ‘궤’보다 ‘상자’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의 언어 감성에 있어서는 ‘상자’보다 ‘궤’가 고풍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새한글』은 고풍보다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입맛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3)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는 זָקֵן(자켄)은 복수 זָקֵנִי(지크네)로 יִשְׂרָאֵל(이스라엘)과 결합하여 יִשְׂרָאֵל זָקֵנִי(지크네 이스라엘) 형태로 구약성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기존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수식어로 따라올 때 보통 ‘자켄’을 ‘장로’로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수식어가 없을 때는 문맥에 따라 ‘늙은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을 1:2).

『표준국어대사전』은 ‘장로(長老)’를 “1.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 2. [기독교] 선교 및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성직(聖職)의 한 계급. 투표에 의하여 선정되며, 교회의 추천과 노회 또는 지방회의 승인을 얻어 임직된다”라고 정의합니다. 실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장로’는 후자의 의미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에서 조금 애매한 예들이 있기는 하지만, זָקֵן(자켄)이 오늘날 교회의 장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זָקֵן(자켄)을 장로로 번역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는 구약성서의 זָקֵן(자켄)을 오늘날 교회의 ‘장로’로 혼돈할 여지가 있습니다.³⁾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זָקֵן(자켄)은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고, 약간의 권위가 있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יִשְׂרָאֵל זָקֵנִי(지크네 이스라엘)이 맥락에 따라 민족공동체를 대표하기에 단순히 ‘노인’이나 ‘늙은이’보다는 존중과 배려의 의미가 있는 ‘원로’는 ‘장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의 ‘장로’에 익숙한 독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로’는 원문의 의미도 살리면서 오해의 여지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⁴⁾

3.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물건 — 여호수아 7:13

3.1. 히브리어 본문과 한글 번역본 비교

BHS⁵

כִּם קָרַשׁ אֶת־הָעָם וְאֶמְרַת הַתְּקַדְּשׁוּ לְמַחֵר כִּי כֹה אָמַר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חֲרָם בְּקִרְבְּךָ יִשְׂרָאֵל לֹא תֹכֵל לָקוּם לְפָנַי

3) 『새한글』의 신약은 זָקֵן(자켄)의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πρεσβύτερος(프레스뷔테로스)를 보통 ‘원로’로 번역하지만, 명백히 교회의 직분으로 쓰일 때는 ‘장로’로 번역합니다(행 14:23; 15:2).

4) 하지만 단순히 남녀노소의 맥락에서는 זָקֵן(자켄)을 ‘노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출 10:9).

אַתָּה יְהוָה אֱלֹהֵינוּ הָאֵל הַיָּחִיד וְהַיָּחִיד הָאֵל הַיָּחִיד וְהַיָּחִיד הָאֵל הַיָּחִיד

『개역개정』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새번역』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공동개정』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새한글』 일어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일러 주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물건이 네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아!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물건을 네 가운데서 없애 버릴 때까지 너의 적들을 견뎌 낼 수 없을 것이다.」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

(1) 『새한글』은 원문 אַתָּה יְהוָה אֱלֹהֵינוּ(히트카드슈 르마하르)의 어순에 따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요!’로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새번역』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공동개정』은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로 번역합니다. 어순 배열에 있어서 『새한글』은 『새번역』과 같습니다.

(2) 『새한글』은 הָאֵל(헤렘)을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물건’으로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온전히 바쳐진 것’, 『공동개정』은 ‘부정한 것’, 『새번역』은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으로 번역합니

다. 『새한글』은 『새번역』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3.3. 외국어 역본 참조

(1) לְמָחָר(르마하르)는 ‘for tomorrow’(ESV, NAS, NRS, NKJ, NET), ‘auf morgen’(LB[1545], LB[1984], LB), ‘für morgen’(ZB), ‘Morgen sollt ihr heilig sein!’(BB), ‘pour demain’(LSG, TOB)로 옮겨집니다. BB를 제외하고 모두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 번역합니다.

(2) 외국어 역본은 אָנָּחָה(헤렘)을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τὸ ἀνάθεμα(LXX), ‘anathema’(VUL), ‘be devoted things’(ESV, NRS), ‘be things under the ban’(NAS), ‘an accursed thing’(NKJ), ‘you are contaminated’(NET), ‘ein Bann’(LB[1545]), ‘etwas, das der Vernichtung geweiht ist’(ZB), ‘Gebanntes’(LB), ‘etwas, das dem Untergang geweiht ist’(BB), ‘de l’interdit’(LSG), ‘un interdit’(TOB)로 번역하였습니다.

3.4.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새한글』은 원문의 어순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לְמָחָר הִתְקַדְּשׁוּ(히트카드슈 르마하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요!’)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는 입말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번역문에서 살렸습니다. 둘째, 『새번역』은 לְמָחָר(르마하르)를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로 하여서 원문에 없는 내용(굵은 글씨)을 집어넣었지만, 『새한글』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성서 고대 히브리어 입말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2) 『새한글』은 원어의 한 낱말 אָנָּחָה(헤렘)을 ‘나(여호와)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물건’이라고 하여 여러 개의 낱말로 옮겼습니다(수 6:17, 18). 성서 히브리어의 אָנָּחָה(헤렘)에 해당하는 한글 낱말은 없습니다. אָנָּחָה(헤렘)의 뜻은 이 낱말이 사용된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אָנָּחָה(헤렘)은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레 27:21; 민 18:14; 신 13:17). 신명기 13:12-17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했다면, 그 말을 한 도시 주민들의 물건을 빼앗아 하나님께 제물로 불에 태워 바쳐야 하기에 그 물건들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אָנָּחָה(헤렘)이라고 합니다(16-17). 이 본문을 통해서 אָנָּחָה

(헤렘)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역본은 서로 의미가 엮여 있기는 하지만 다섯 개의 번역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저주받은 것(NKJ).
- ② 금지된 것(NAS, LSG, TOB).
- ③ (신에게) 바쳐진 것(LXX, VUL, ESV, NRS, ZB, BB, 『개역개정』).
- ④ 더러운 것(NET, 『공동개정』).
- ⑤ 봉헌되어서 파괴해야 할 어떤 것(ZB, BB, 『새번역』).

이 가운데 다섯 번째 그룹과 『새한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멸 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고 번역한 『새번역』과 『새한글』은 가장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전멸’이라는 한자어 대신 ‘완전히 없애야 할’이라고 하여 순우리말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그룹과 『새한글』은 풀어서 설명하는 번역을 합니다. 이 그룹에 속한 역본들은 모두 2000년 이후 나온 번역입니다. 『새한글』 머리말이 제시하는 번역 특징 16번 항목에서는 “최근, 특히 2000년대에 출간된 서양 외국어 번역본들이나 개정본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번역 경향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הָרֵם**(헤렘) 번역은 이러한 특징에 해당합니다.

4. 소금바다 — 여호수아 12:3

4.1. 히브리어 본문과 한글 번역본 비교

BHS ⁵	וְהָעֲרֶבָה עַד-יָם פְּנִיּוֹת מִזְרָחָהּ וְעַד יָם הָעֲרֶבָה יַם-הַמֶּלַח מִזְרָחָהּ דָּרָדָר בֵּית הַיְשׁוּמוֹת וּמֵהַיָּמִן תַּחַת אֲשֵׁרוֹת הַפְּסָגָה:
『개역개정』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의 뱃여시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새번역』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 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 의 사해 , 뱃여시뭇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다스렸다.
『공동개정』	거기에서 해 뜨는 쪽 아라바 긴네렛 호수에 이르고 한편 잔물 호수 라고도 이르는 아라바 호수에 이르렀는데, 뱃여시뭇 쪽 비스가 산 기슭이 그 남단이었다.
『새한글』	동쪽으로는 아라바 땅 곧 긴네렛 바다까지 이르는 곳

과 아라바 바다 곧 **소금바다**(사해)까지 이르는 베틀시
못 길을, 남쪽으로는 비스가 기슭 아래를 다스리고 있
었다.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

- (1) 『새한글』은 원문에 없는 ‘다스리다’를 첨가하였습니다.
- (2) 원문에는 מִצְרָח(미즈라하)가 두 번 있는데, 『새한글』은 מִצְרָח(미즈라하)를 한 번만 번역합니다.
- (3) 히브리어 원문의 יַם הַמֶּלַח(암 함멜라흐)를 『개역개정』은 ‘염해’, 『새번역』은 ‘사해’, 『공동개정』은 ‘짠물호수’로 옮기지만, 『새한글』은 ‘소금바다’로 번역합니다.

4.3. 외국어 역본 참조

- (1) NET는 원문에 없는 ‘his kingdom included’를 추가합니다. 그 외 역본 중에서는 이런 첨가어를 찾기 힘듭니다.
- (2) 외국어 역본에서도 두 개의 다른 번역 경향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מִצְרָח(미즈라하)가 두 번 나타나며 보통 두 번 다 번역하지만, ESV, NKJ, BB처럼 한 번만 번역하는 역본도 있습니다.
- (3) 히브리어 원문의 יַם הַמֶּלַח(암 함멜라흐)를 고대 역본 ‘θάλασσα τῶν ἁλῶν’(LXX)와 ‘mare Salsissimum’(VUL)에서부터 현대어 역본 ‘the Salt Sea’(ESV, NAS, NKJ), ‘the rift valley[the Salt Sea]’(NET), ‘das Salzmeer’(LB, BB, ZB), ‘la mer Salée’(LSG), ‘la mer du Sel’(TOB)까지 대부분 ‘소금바다’ 또는 그 유사 의미로 번역합니다. 이와 달리 NRS는 ‘the Dead Sea’로 번역하였습니다.

4.4.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 (1) 『새한글』은 『새번역』처럼 원문에 없는 ‘다스리다’를 추가하였습니다. 3절은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는 아모리 임금 시혼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2절에서는 ‘다스리다’ 동사가 분사형 מְשָׁל(모셀)로 있지만, 3절에서는 이 낱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3절 역시 시혼이 다스리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한글』은 원문 형태에 가까운 번역을 추구하기에 대체로 원문에 없는 단어의 첨가를 자제하는 편

입니다. 하지만 가독성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경을 볼 때 시야의 범위가 넓지 않기에 이를 고려하여 3절 그 자체로서도 의미 전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시도는 외국어 역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NET는 ‘his kingdom included’를 추가하고 번역 각주를 달았는데,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번역자가 추가하였다고 설명합니다.

(2) 히브리어에는 מִצְרָח(미즈라하)가 두 번 쓰였는데 둘 다 번역하면 문장이 복잡해질 수 있기에 『새한글』은 하나만 번역합니다.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원문의 단어를 누락시키는 결정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학/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도 아니고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다 중복까지 된다면, 번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מִצְרָח(미즈라하)를 두 번 다 번역한 『개역개정』과 『새번역』에 비해서 『새한글』이 깔끔해 보입니다. 3절은 의미 구조를 ‘동쪽 …, 남쪽 …’로 하여서 방향 표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미즈라하’ 중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역개정』은 ‘동방 … 동방 … 남쪽’이며 『새번역』은 ‘동쪽 방면 … 동쪽 방면 … 남쪽으로’, 『공동개정』은 ‘해 뜨는 쪽 … 남단’입니다. 방향 표시도 『개역개정』은 ‘동방’과 ‘남쪽’, 『공동개정』은 ‘해 뜨는 쪽’과 ‘남단’ 등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동방(쪽)’이 중복되어 다소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3) 히브리어 מֶלַח הַיָּם(얌 함멜라흐)의 יָם(얌)은 성서 히브리어에서 ‘바다’와 ‘호수’를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참조, BDB, 410).⁵⁾ יָם(얌)을 주전 3~1세기경 LXX는 θάλασσα(탈라사)로 그 이후 VUL도 ‘mare’, KJV는 ‘the salt sea’, LB(1545)도 ‘Salzmeer’를 비롯하여 20세기 이후 현대어 역본까지 거의 예외 없이 ‘바다’로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מֶלַח הַיָּם(얌 함멜라흐)가 호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호수로 번역하지 않을까요? 성서 히브리어에서 יָם(얌)은 ‘바다’와 ‘호수’를 다 가리킵니다. 따라서 מֶלַח הַיָּם(얌 함멜라흐)는 호수이기에 그냥 ‘호수’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처음으로 외국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이후 יָם(얌)을 ‘바다’로 번역하였던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며 하나의 번역 전통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와 붙어는 ‘소금바다’를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소금바다’를 지명 곧 고유명사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KJV가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KJV를 개정한 NKJ는 대문자 ‘the Salt Sea’를 사

5) 민 34:7에서 『새한글』은 הַיָּם הַהוּא(하얌 학가둘)을 ‘큰 바다인 지중해’라고 합니다(참조, 출 13:18; 신 1:7).

용합니다. 『새한글』은 ‘소금’과 ‘바다’를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사용합니다. ‘소금바다’를 특정 지역의 고유한 이름으로 보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만약 기존 역본에 없매이지 않는다면, **אֲמֵלַח הַיָּם**(암 함멜라흐)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기 때문에 ‘소금 호수’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공동개정』은 **אֲמֵלַח הַיָּם**(암 함멜라흐)를 ‘잔물호수’로 번역합니다. 호수를 호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번역 전통’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⁶⁾

5. 두려워하다, 유프라테스강 — 여호수아 24:14

5.1. 히브리어 본문과 한글 번역본 비교

BHS ⁵⁾	וַעֲתָה יִרְאֹן אֶת־יְהוָה וְעָבְדוּ אֹתוֹ בְּתַמִּים וּבְאֵמֶת וְהָסִירוּ אֶת־אֱלֹהִים אֲשֶׁר עָבְדוּ אֲבוֹתֵיכֶם בְּעֶבֶר הַנָּהָר וּבְמִצְרַיִם וְעָבְדוּ אֶת־יְהוָה:
『개역개정』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새번역』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 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공동개정』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에서도 섬겼고 이집트에서도 섬겼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야훼를 섬기시오.
『새한글』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오롯이, 또 참되이 그분을 섬기십시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과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없애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6) 신약에서 ‘긴네렛’은 갈릴래아(갈릴리)로 불리며 *θάλασσα*(탈라사)라고 합니다. 『새번역』은 ‘바다’, 『공동개정』은 ‘호수’로 번역하며, 『개역개정』은 ‘호수’(마 15:29; 막 7:31)와 ‘바다’(마 4:18; 막 1:16)를 혼용합니다. 『새한글』은 『새번역』처럼 ‘바다’로 번역합니다.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

(1) 기존 한글 역본은 אָרַךְ(야레)를 ‘경외하다’로, 『새한글』은 ‘두려워하다’로 번역합니다.

(2) 『개역개정』은 הָרְקִיעַ הַבְּעֵלְמַי(브에베르 한나하르)를 ‘강 저쪽’, 『새번역』은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공동개정』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처럼 『새한글』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이라고 번역합니다.

5.3. 외국어 역본 참조

(1) 이 문제들은 한글 역본 비교로 논의할 사안입니다.

(2) 외국어 역본은 보통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만, 일부 역본은 ‘유프라테스’나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합니다. ‘beyond the Euphrates’(NET), ‘Eufrat’(BB), ‘Euphratstrom’(LB[1984]), ‘Mesopotamia’(VUL). NAS는 ‘beyond the River’이라고 하며 각주에 ‘유프라테스’라고 합니다.

5.4.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여호수아서가 אָרַךְ(야레)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אָרַךְ(야레)의 대상을 사람과 하나님으로 나누면, אָרַךְ(야레)의 번역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אָרַךְ(야레)의 대상이 사람일 때,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두려워하다’로 번역합니다(수 4:14; 8:1; 9:24; 10:2; 10:25; 11:6). 『공동개정』도 사람이 אָרַךְ(야레)의 대상이면 ‘두려워하다’로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אָרַךְ(야레)할 때는 ‘겁에 질렸다’로 합니다(수 9:24; 10:2). אָרַךְ(야레)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경외하다’로 번역합니다(수 4:24; 22:25; 24:14). 하지만 『공동개정』은 ‘두려워하다’(수 4:24), ‘공경하다’(수 22:25), ‘경외하다’(수 24:14)로 하여 다양한 번역을 시도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אָרַךְ(야레)의 대상 즉 사람이나 하나님이나에 따라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다’로 번역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공동개정』은 אָרַךְ(야레)의 대상이 사람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하나님일 때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개정』이 『개역개정』과 『새번역』보다 섬세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동개정』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한글』은 אָרַךְ(야레)의 대상이 누구든 문맥이 어떻든 일

관되게 ‘두려워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번역 기법 관점에서 『새한글』은 ‘쉬운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⁷⁾ אָרֶּ (아레)는 무조건 ‘두려워하다’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기에 ‘쉬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공동개정』은 어려운 기술을 썼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새한글』은 어려운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쉬운 기술’을 썼을까요? 원문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일관성 있는 번역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휘의 일대일 번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쉬운 기술’에는 원문 존중이라는 동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번역으로 인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앙적 교훈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אָרֶּ (아레)의 대상이 사람일 때는 대부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가나안 계열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수 8:1; 10:8, 25; 11:6).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수 4:24; 22:25; 24:14). 여호수아서를 읽는 『새한글』의 독자는 자연스럽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이며, 가나안 민족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참조. 수 4:24).

(2) הָנָהָר הַבְּעֶבֶר (브에베르 한나하르)는 두 가지 번역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역개정』처럼 원문을 문자대로 ‘강 건너편’으로 옮기는 유형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수의 외국어 역본이 이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둘째는 원문에 부연 설명어를 다는 유형입니다. 부연 설명어도 『새번역』과 VUL의 ‘메소포타미아’와 『공동개정』, NET, BB, LB(1984)의 ‘유프라테스’로 나누어집니다. 『새한글』은 후자 그룹을 따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 연설에서 הָנָהָר הַבְּעֶבֶר (브에베르 한나하르)는 14절 외에 2절에서도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הָנָהָר הַבְּעֶבֶר (브에베르 한나하르)를 가리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나홀과 할아버지 데라호가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도 『새한글』은 히브리어에 없는 ‘유프라테스’를 첨가하였습니다. 14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이 살았던 언급이 없이 그냥 הָנָהָר הַבְּעֶבֶר (브에베르 한나하르)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호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14절에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절과 14절의 הָנָהָר הַבְּעֶבֶר (브에베르 한나하르)는 동일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부터 본문의 흐름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14절의 ‘강 너머’가 아브라함과 나홀, 데라호가 살던 곳이라는 사실을

7) 조금 다른 의도이기는 하지만, 성서 번역과 관련하여 ‘쉬운 기술’이라는 표현은 제임스 바(J. Barr, *The Typology of Literalism in the Ancient Biblical Translatio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300)가 사용하였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과 14절은 본문 간의 거리가 있어서 흐름을 잘
쫓지 않으면 14절의 ‘강 건너편’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새한글』은 원문에 없지만 2절과 14절 두 곳 모두 ‘유프라테스’를 첨가하여
독자들이 본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디지털 매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균형도 고려한 듯합니다. ‘유프라테스’
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 곳은 ‘강 건너편과 이집
트’입니다. ‘이집트’라는 고유명사와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었지 않았나 생
각합니다. [보통명사 + 고유명사]보다 [고유명사 + 고유명사]가 문학적 균
형도 이루고, 이러한 균형은 내용 전달력도 더 좋게 합니다.

<주제어>(Keywords)

여호수아 2:1, 여호수아 7:6, 여호수아 7:13, 여호수아 12:3, 여호수아
24:14.

Joshua 2:1, Joshua 7:6, Joshua 7:13, Joshua 12:3, Joshua 24:14.

(투고 일자: 2025년 3월 6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2일)